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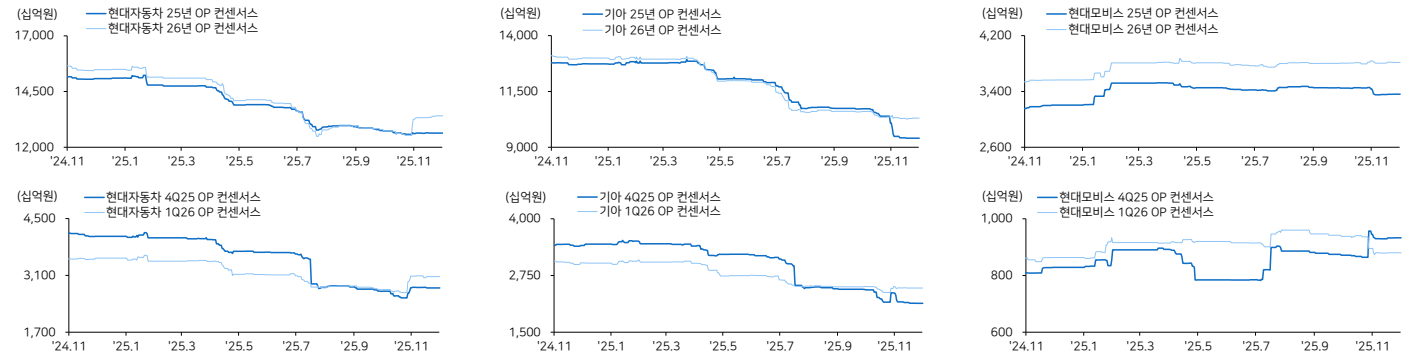
2025.12.8 (월)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김아현 a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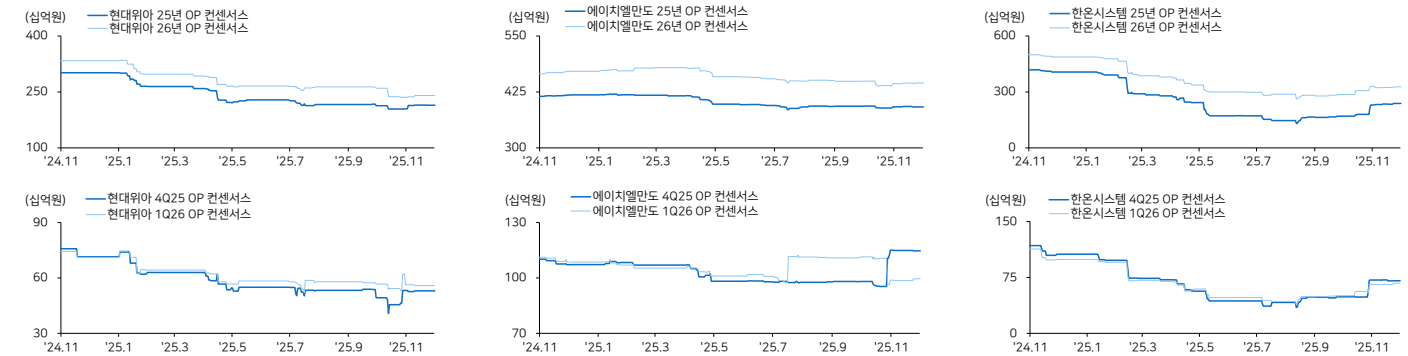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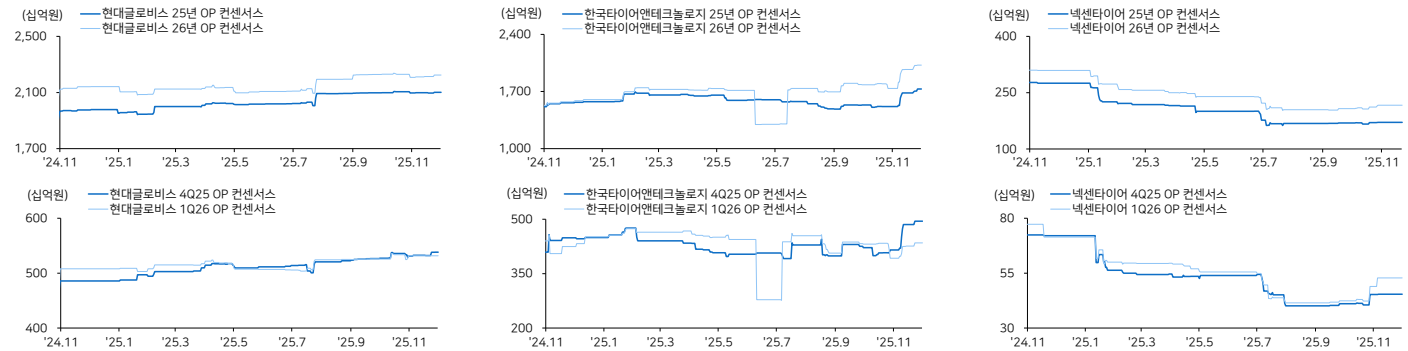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FSD 韓 상륙 다음은 로보택시?...테슬라, 엠스토어에 열 심수 (뉴시스)

테슬라, 국내 엠스토어에 로보택시 열 배로. 이는 최근 국내 출시된 감속형 FSD와 더불어 로보택시의 국내 도입 가능성 시사. 로보택시 역시 한미 FTA 인증 면제 조항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환경 조성된 상태로, 업계의 관심 집중됨

<https://znr.kr/h4ukGY>

현대차그룹, 서남권에 신사업 거점...시데이터센터-수소기지 세운다 (한국경제)

현대차그룹, 전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서남권 벨트에 피지컬 AI 전진기지 건설 추진 중. 이를 위해 최근 로봇-수소에너지 TF를 신설하고, 피지컬 AI 기술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 향후 다크 팩토리 현실화와 로봇 파운드리 사업 추진할 방침

<https://znr.kr/h5SZ7a>

현대오트모, '자율주행 AI 두뇌' 완성...고성능 AP 3종 지원 (전자신문)

현대오트모, 외산 SW 독점 시장인 자율주행 OS 시장에서 기술 독립 달성. 고성능 AP 3종을 모두 지원하는 '한국형 자율주행 AI 플랫폼' 완성. 독자적인 OS 생태계 구축은 현대차그룹의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양산 및 SDV 전환 속도 가속화할 전망

<https://znr.kr/d8ktr>

24시간 교박 일해도 불만 없다...중, 휴머노이드 61% 점령 (중앙일보)

중국, 베이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근무하는 세계 최초 무인 편의점 개점하는 등 모건스탠리 추정 세계 시장의 61% 차지할 것으로 로봇 공기업의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은 공장 현장에서 작업 데이터 축적시켜 피지컬 AI 성능 향상에 주력

<https://znr.kr/ALVtzt>

Waymo to issue recall over self-driving vehicles driving past stopped school buses (Fox Business)

Waymo, 텍사스 주에서 최소 19건 이상의 자사 차량이 정차된 스쿨버스를 무단 통과한 사건이 보고된 후 자발적 리콜 실행. NHTSA는 Waymo에 설명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 Waymo는 이 문제를 차량의 SW 결함이라고 보고 조치 조치라고 밝힘

<https://znr.kr/0wxd7D>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

Tesla launches 'Standard' Model 3 in Europe with aggressive pricing to stop bleeding sales (Electrek)

Tesla, 유럽 시장 판매 부진 만회 및 경쟁사 대응 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Model 3 및 Model Y의 'Standard' 트림 공식 출시. Model 3 Standard는 독일에서 36,990유로부터 시작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기능을 제거

<https://znr.kr/lnbhlZ>

정의선 회장 "자율주행,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최우선 가치" (뉴시스)

현대차 정의선 회장, 기아 창립 80주년 행사 직후, 자율주행 기술이 Tesla 등 경쟁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술 격차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을 밝힘. 기아 성장의 공을 국민과 정부에 돌리며 '도전의 모험' 밝힘

<https://znr.kr/sVQdIP>

기후부 "스마트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량 임의 제한 안해" (연합뉴스)

기후부, 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 완속 충전기' 보급을 기본 방침으로 강조. 앞으로의 모든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충전기로 전환할 계획. 특히 스마트 충전기의 핵심 기능인 '충전 제어'가 정부의 '임의 충전량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

<https://znr.kr/S28sAp>

Nio power signs new deal for swap station construction (CnEVPost)

Nio의 에너지 자회사 Nio Power가 우한시 국유기업 Optics Valley 교통공사와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이번 협약으로 전기차 충전 및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건설 및 운영, 에너지 혁신 사업 등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추진하며 인프라 확충 노력 예정

<https://znr.kr/N2dskJ>

올해 중 제1 세계 전기차 620.8만대, 27.8% ↑...현대차그룹 3위 (연합뉴스)

올해 1~10월 중국 제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약 620.8만대(+27.8% YoY)로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 유럽은 32.9% 성장, 점유율 54.1%로 최대 시장 유지. 북미는 IRA 세액공제 조기 종료 여파로 성장세 둔화. 현대차는 브랜드별 판매 3위 기록

<https://znr.kr/k4dnh0>